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323>

JCCT 2024-3-38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급의 한’ — 봉준호 영화를 중심으로 —

‘Han of the Cla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Non-Character Symbols - on the Film of Bong Joon-ho -

조송림*, 김유진**

Song-lin Zhao*, Yoojin Kim**

요약 ‘한(Han)’은 한국인들이 오랜 민족적 고난을 경험하면서 형성한 심리적 특성이다. 이는 집단적 무의식의 형태로, 모든 한국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예술 형식과 융합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로, 계급 간의 ‘한’을 서사화하여 한국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재조명한다. 이 연구는 봉준호 감독의 여섯 편의 영화를 통해 ‘계급의 한’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한 문화’를 고찰한다. 영화 분석에는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를 구분하여 기호학적 접근을 적용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의 대표작들은 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계급적 계층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다. 이 연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풍자-폭로-희망’의 순서로 분석하여, 그의 작품이 계급에 미치는 문화적 비판적 성격과 대중의 정신 문화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주요어 : 봉준호, 문화의 한, 계급의 한, 한국 영화

Abstract The concept of 'Han' is 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formed by Koreans through long-lasting national hardships. It has deeply influenced every Korean as a form of collective unconscious and has merged with various forms of art over time. Director Bong Joon-ho's works, rich in social consciousness, symbolically visualize sensitive issues like social class, presenting harsh satire on class oppression. His movies continuously emphasize human desires, the homogeneity of good and evil, insurmountable class barriers, and moral decay caused by desires. They produce a wealth of symbols filled with layers and power dynamics. Bong Joon-ho dramatically portrays and directs various forms of symbols. The metaphorical symbols in his movies provide a unique research value for delving into the deeper meanings of the films. This study examines the theme of 'class Han' in six of Bong Joon-ho's films, exploring the 'Han culture' of Korea. It applies semiotic concepts by categorizing into character and non-character symbols for an in-depth analysis of the films. The representative works from the late 1990s to the late 2010s articulate the class layers of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hrough a blend of realism and surrealism. The study analyzes Bong Joon-ho's films in the sequence of 'satire-exposure-hope', examining the culturally critical nature of 'Han culture' on class and its psychological and cultural impact on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 Bong Joon-ho, Han culture, class Han, Korean film

*정희원,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제1저자)

**정희원,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0일

Received: January 2, 2024 / Revised: January 21, 2024

Accepted: February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foto72@hanmail.net

School of Photography & Videography, Kyungil Univ,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전 세계의 뉴스, 문화, 전문 지식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교육적 자원이 부족한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역압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명확한 계급제도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계급 체계가 존재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1]. 현재 SNS를 비롯한 인터넷의 단편화된 정보 환경 아래에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 간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으며, 영화와 같은 예술 형식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다. 영화는 사람들의 이념을 형성하고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시대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2].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인간의 본성과 계급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사람들의 사고와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고, 그는 그만의 독특한 영화 연출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복잡한 '한'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묘사는 영화적 결말을 넘어서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사회적 담론을 생성한다[3]. 최근 세계적 쟁점이 되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사건을 보면, 이것 역시 계급적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한 자원 배분의 갈등 등을 드러내며[4], 마치 봉준호 감독의 작품 <한강 괴물>의 이야기 배경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베이징대학교 태진화(戴錦華, Dai Jinhua)교수는 《공간과 계급의 큐브》에서 현대 도시는 이질성을 지닌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제한된 물질적, 공간적 자원 때문에 계층 간 적대와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고 말한다[5].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계급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의 표면 아래 숨겨져 표출되지 않고 한국인만의 심리적 특징인 '한'으로 맺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통해 '한 문화'가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에 미치는 비판적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계급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思考)와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출한 <플란다스의 개>, <마더>, <기생충>, <살인의 추억>, <한강 괴물>, <설국열차> 등 총 6편의 영화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영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계급 문제'와 '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탐구하고 있기에 연구 주제에 적합하다. 연구 방법으로는 크리스찬 메츠(Christian Metz)의 영화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6] 텍스트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라는 두 관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통해 세밀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메츠는 《Cinéma: langue ou langage》에서 영화가 특별한 언어 기호 체계임을 처음 언급했다. 이는 영화 속 인물, 이미지, 텍스트, 음악, 사운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영화 주제와 내용의 의미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의 의미는 영화 기호 체계의 요소들 사이의 내부 작동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영화의 함축과 외연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표와 기의(ignifier and signified)는[7] 봉준호의 영화 속에 나타난 은유적 기법과 잘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기호학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한다면 영화 이면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한' 문화의 깊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 문화의 정의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초기 인상이 고정되어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삶의 경험으로는 상쇄될 수 없다[8]. 이는 '콤플렉스'의 영향 때문이다. 콤플렉스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형성된 잠재 의식의 심리로 한국 민족에게는 '한'으로 나타난다. '한'은 많은 한국 학자들에 의해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식되었다[9].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으로 불려왔으며, 이는 한민족에게 독특한 문화적 의식을 부여한다[10]. 이러한 의식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恨)’은 단지 ‘유감’, ‘회한’의 의미로 알려져 있었다[11].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한’은 굴욕, 절망, 변화와 소망을 비롯한 무력감과 비분으로 이어져 한국인 가슴 속에 보편적인 마음의 상처로 응집되었다[12]. ‘한’이라는 감정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 풍속으로 발전했다[13]. 한국인이 제창한 ‘한’ 철학은 한국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함축적 철학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의 본질을 “대항할 수 없는 운명에 잠시 외면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품고 기다리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난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한’의 본질이다[14].

‘한’ 문화는 역사적 기원은 한국의 현대화 발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문화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불안과 사회 분열로 인해 대립과 적개심이 증폭되어 다양한 사회 문제와 불평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는 계급 및 부의 불평등, 성차별, 지역 편견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한’은 ‘식민지의 한’, ‘분열의 한’, ‘남녀의 한’, 그리고 ‘계급의 한’ 등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15]. 봉준호의 영화에서 ‘계급’은 가장 많이 은유된 개념이다. 한국인들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을 경험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림 사건’ 등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16].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에도 권력자의 권력 남용과 검은돈의 거래는 민중의 분노를 계급 지배자에 대한 ‘한’으로 전환 시켰다.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는 모두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상징의 등장은 영화 창작자들의 주관적인 선택이며 그들의 감정적 가치지향인 ‘한’을 진정으로 표현한 것이다[17]. 따라서 봉준호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는 ‘한’이라는 감정이 지배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한’ 문화의 담체(擔體)이자 투사 대상이 되어 ‘한’ 문화의 응축과 반영이 되었다. 인물 부호는 대부분 영화의 등장인물 캐릭터를 투사한다. 영화 <마더>에서 ‘지적장애자’로 나온 등장인물이 그 예시이다. 반면에 비인물 부호는 영화 <기생충>에 보여준 배경인 별장, 반지하, 지하실 등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서 어떠한

상징이 ‘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비극 외에도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코미디에도 ‘한’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기호는 한국 영화에서 ‘한’ 문화를 고도로 응축한 전달체가 되어 영화의 주제를 드러내고 ‘한’ 정서를 승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I. 봉준호 영화 속 ‘계급의 한’

1. 하층 계급 간의 비극적 풍자

1) <플란다스의 개> - 하층 계급으로부터 탈출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그의 계급 계층이론에서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 계층은 일정한 사회적 의의가 있는 속성에 근거하여 한 사회 구성원의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라고 언급했다[18].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인물 부호는 ‘한’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영화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개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날 ‘개’는 반려동물로써 인간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계급 수준은 분명히 다르다. <더 고급 동물>이란 이 영화의 부제를 보면 그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을 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하층이라 불리는 계급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개와 인간은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을 상징하며 이는 주인공과 개의 생활 공간과 노숙자들의 거처에서도 계급 차이를 보여주었다. 개는 하층 계층의 상황을 상징하는 ‘도량형’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계급의 ‘한’을 표현한다. 질서가 없어 보이고 생명력과 활력을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그저 개보다 더 ‘고급 동물’에 가깝다. 영화 속에서 개는 계급을 나누는 척도가 되어 개보다 잘 사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급을 넘어서려는 하층 계층의 ‘한’을 ‘사람’과 ‘개’를 비교함으로써 계급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는 계급 억압을 풍자한 황당 주의 코미디 영화이다.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거둬 조롱당하고 체면 있는 정체성과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 이야기의 충돌점이 된다[19]. <플란다스의 개>는 예시 관찰 방법을 통해 사회의 현상을 해석하며, 하층 계급의 사회 규칙과 이상주의 복잡한 심리를 찾고 있다. 영화의 결말은 원만해 보이지만 그의 성공은 ‘개’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다. 하

층 계급이 다음 단계를 넘으려면, 자신보다 더 약한 계급을 희생시켜야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개'는 더 약한 계급을 대표하는 기호이자 희생당하고 있는 계급의 '한'을 상징하고 있다. '고급 동물'은 하층 계급의 생활을 참고 산다. 각 하층 계급의 '한'은 영화 첫 시작의 개 짖는 소리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

2) <마더> - 하층 계급 간의 억압

봉준호 감독은 하층 계급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사건의 '목적자' 또는 '직접 경험자'가 영화의 줄거리 전개를 촉진하는 인물 부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마더>에 등장하는 '지적장애자'는 전형적인 하층 계급의 기호이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그의 저서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하층[20]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지칭한 프롤레타리아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람시가 언급한 '하층'은 종속적 지위, 정치적 지위, 경제적 여건 및 문화적 자원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억압은 하위 계층의 공통된 심리적 특징이 된다. 또한 막스 셸러(Max Scheler)는 '한'은 우선 하인, 피지배자, 자존감이 짓밟혀져 힘이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한된다고 하였다[21]. 이들은 '한'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은 대부분 권력과 상관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계층으로부터 억압받는 계층이다. 하층 계급은 마음에 쌓인 '한'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풀어내려고 한다.

<마더>는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범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층 계급은 상류 계급 앞에서 힘이 없고 반항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영화 속 남주인공 윤도준은 '바보'라는 이미지로 제시하는데 경찰과 변호사 등 상류 계급의 억압에 밀려 누명을 쓰는 하층 계급의 지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도준은 누명이 아닌 여고생을 살인한 진짜 범인이었다. 결국 자식의 누명을 벗기 위해 어머니는 또 다른 하층 계급인 '지적장애자'를 찾아 음해할 수밖에 없었다. 누명은 쓴 '지적장애자'는 어머니도 없는 최하층 계급이었다. 이는 하층 계급 내부의 억압과 '한'을 드러내며, 봉준호 감독이 하층 계급 간의 복잡한 심리와 상황을 세심하게 포착하고 있다.

하층 계급 간에도 억압이 존재한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한'을 표현하고 해소하려 한다. 영화 <마더>는 하

층 계급이 상류 계급으로부터 억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 간에서도 더 잔인한 억압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하층 계급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하층 계급의 삶과 그들이 겪는 억압과 투쟁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가진 계급 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한다.

2. 지배계급 이면의 어두운 진실

1) <기생충>-모든 사회 구성원은 '기생충'

영화 <기생충>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계급 차이를 블랙 유머로 풍자한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주로 비인물 기호를 이용하여 계급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지하실, 반지하실, 그리고 상류층의 저택까지 세 개의 다른 공간의 대비로 계급 간 차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이미 토빈(Amy Taubin)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위층-아래층'이란 수식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22]. '아래로부터 위로' 이는 전통적인 질서이자 영화 <기생충>의 계급 간 구분의 기준이다.

영화 제목 '기생충'은 상류층 사람들에게 붙어 기생하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을 은유하는 의미이다[23]. 그러나 영화에 나온 김기택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했던 가정부와 남편, 심지어 박 사장의 가족까지 모든 인물은 사회적 관념의 '기생충'이다[24]. 즉,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기생충'일 뿐이다. 얼핏 보기엔 김기택 가족이 박 사장 집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보이지만, 사실 영화 속 의미는 '기생충'의 정체를 알려줌으로써 상류층 부자들 역시 하류층 사람들에게 기생하고 있음을 은유한다. 박 사장의 가족은 김기택 가족 같은 하층 계급이 없다면 부유를 누리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는 해고한 가정부가 떠나고 박 사모가 집안을 관리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인물 기호 관점에서 보면, 김기택 가족은 처음부터 하층 계급의 기생충이 아니었다. 김기택 가족과 해고당한 가정부의 가족은 사실 하층 계급의 상징이 아닌 중산층 계급의 상징이다. 영화 속 등장인물의 상황을 정리 하자면 아버지 김기택은 '대만 카스테라' 관련 사업가였고(그림 1 참고), 아내는 과거 해머던지기 은메달리스트였다. 아들은 모스부호를 알고 있는 스카우트(scout) 출신이자 영어를 잘하고, 딸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다. 만약 사업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 계급으로 무난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

을 것이다. 또한 해고당한 가정부 역시 남편의 카스텔라 사업의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지하실에 숨어 살기 전에는 하층 계급이 아닌 중산층 계급이었을 것이다(그림 2 참고). 들은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민 계층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 기호로 사업과 투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층 계층이 되었다. ‘대만 카스텔라’는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카스텔라의 재료인 식용유 논란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사라졌다. 그러나 빵 재료로 식용유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빵은 아니다. 실제로 ‘대만 카스텔라’가 대한민국에서 보이콧을 당한 이유는 먹거리X파일이라는 시사 고발 방송 때문인데, 이 방송에서는 식용유를 비롯한 첨가제 사용을 빌미로 ‘대만 카스텔라’의 부정적 요소만을 자극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만 카스텔라 사업 실패’는 하층 계급에 대한 상류 계급의 탄압과 배척을 풍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김기택 가족과 가정부 가족만이 ‘기생충’이 아니라 박 사장네 가족 같은 상류계층도 하층 계급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계급적 ‘한’의 본질이다.



그림 1. <기생충> 김기택 일가의 카스텔라 관련 대화 장면
 Figure 1. In "Parasite," Scene of the Kim Ki-taek Family
 Discussing the Castella Business



그림 2. <기생충> 가정부 남편의 카스텔라 관련 대화 장면
 Figure 2. Scene of the Housekeeper's Husband
 Discussing the Castella Business

2) <살인의 추억>-시대가 낳은 운명의 비극성

한국 영화는 ‘한문화’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현대 사건을 잘 표현한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이러한 시대적 ‘한’의 감정을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 국가는 특정 영역 내에서 폭력의 합법적 사용권을 독점하는 인류 공동체이다[25].”라고 주장한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은 용의자로부터 폭력을 이용하여 자백을 강요하며, 연쇄 살인범이 잡히지 않아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회 현상’은 일종의 ‘한’의 기호이다.

영화의 실제 이야기는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서 소재를 따왔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림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영화 속의 사회 현상이 사실은 그 시대에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모든 창조적 행위는 인간 생활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 집단적 무의식이 살아 있는 경험이 되어 새로운 시각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마다, 각각의 이러한 사건은 전 시대적으로 중요한 창조적 행위가 된다 [26].”라고 말한다. 즉, 군사독재로 인한 학생 저항운동과 폭력진압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집단적 무의식이 되었고 ‘한’이라는 창조적 행위가 되었다.

<살인의 추억>은 범죄 스릴러 영화이다. 일반적인 범죄 영화와 다른 점은 범인은 누구인지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 영화 속 박두만이 뒤돌아보는 시선은 카메라와 관객을 향한 마지막 장면이자 명장면 되었다(그림 3 참고). 영화 속 목격자인 여자아이는 범인의 모습이 일반인처럼 생겼다고 말한다. 선천적 사이코패스나 우리가 상상하는 사악한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살아가는

일반인의 모습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도 군사독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박두만의 마지막 시선은 범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과 관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었다. <살인의 추억> 영화 속 대한민국은 군사독재에서 민주사회로 전환되는 중요한 격동의 시기이고,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찰, 폭력에 의한 고백을 강요당하는 '지적장애자' 등이 사회 구성원이다. 이 불안정한 시기에 군사정권은 모든 국민의 감정을 폭력으로 억압한다. 연쇄살인 사건은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은유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27]. 이 영화는 연쇄살인 사건의 원인과 군사독재 아래에 있는 '사회적 환형 특징'과 결합하여 하층계급의 운명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하층계급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모면할 수 없는 운명의 비극성을 나타낸다[28]. 이러한 비극성은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더욱 강한 '한'을 키우는 근원이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로 하였다.



그림 3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
 Figure 3. The last scene of "homicide memories".

3. 민주와 평등의 희망

1) <괴물>-대한민국 국민은 승리의 희망

<괴물>은 판타지 장르의 영화이다.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민들이 괴물을 상대로 싸우며 끝내 승리하는 줄거리다. 그러나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단순한 승리 스토리가 아니다. 영화 속 괴물은 비인물 기호에 속한다. 영화에 나온 괴물은 주한미국의 부도덕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탄생한 악의 근원이자 공격의 주체이다.



그림 4. <한강괴물> 속 양복 입은 사람이 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장면
 Figure 4. A scene of a person in a suit jumping into a river to commit suicide

영화 세 번째 장면(그림 4)에서 한강 다리 중간에 서 있는 정장의 인물이 나오는데, 자살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한강 물 속의 괴물을 발견하고 “끝까지 둔해 빠진 새끼들... 잘 살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강으로 뛰어든다. 보통 정장이란 의상은 비즈니스의 상징이자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물 기호로 보여줄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1970 년대를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엄청난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1990 년 중반부터 아시아에는 금융위기가 왔고 대한민국 역시 IMF 외환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아시아 금융위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안정성 불안, 고정 환율 정책의 실패, 금융 시장의 부실 등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유치는 국가의 외환 관리 능력을 잃게 하였다. 물론 그 원인의 중심에는 미국의 금융 긴축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괴물은 미국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금융 경제 정책으로 야기된 공격 주체였다.



그림 5. <괴물> 한국 국민들이 'Agent Yellow' 투입에 항의하고 있는 장면
 Figure 5. A scene of Korean citizens protesting against the deployment of 'Agent Yellow'

이 영화에서 한국 국민에게 가장 큰 해가 된 것은 사

실 ‘괴물’이 아니다. 결말을 보면 괴물은 불화살과 표지판 기둥으로 정도로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가 된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화학무기(Agent Yellow)를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사람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은 큰 피해를 보았다(그림 5 참고). 여기서 화학무기는 전형적인 비인물 기호의 상징이다. 1997년 한국은 IMF의 까다로운 여러 조건을 받아들이며 구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IMF 외환 위기’이다[29]. 이 상황은 영화에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화학무기를 투입한 것처럼 우리 경제에는 부작용이 컸다. 한국의 많은 기업이 파산하였고 많은 중산층이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여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하며 계급의 ‘한’을 더욱 증폭하였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정부가 사용한 화학무기는 IMF에 대한 차관을 의미한다.

인물 기호 관점에서 보면 ‘괴물’과 싸우는 박강두 가족은 각각 분명한 캐릭터 특징을 가진다[30]. 박강두의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용감한 분이며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를 상징한다. 박강두는 다소 멍청한 인물로 열정 없고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서민의 상징이지만 끝내 각성하며 괴물을 상대로 싸우는 인물이다. 여동생 박남주는 한국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자신감이 부족한 인물이다. 남동생 박남일은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한 인물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박강두의 딸 박현서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상징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파괴되었다. 누구나 미래가 없는 희망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이 되어 희망을 구원하기 위해 모두 목숨을 걸고 괴물과 싸운다. 한국은 비록 ‘외환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층 계급으로 전락했지만, 한편으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물론 정치적 불신으로 야기된 계급의 ‘한’은 더 깊이 맺혔다.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약한 가족이 강한 괴물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을 뿐 정치적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봉준호 감독은 하층 계급 사람들의 생활상과 캐릭터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관객들에게 충분한 상상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영화 속 기호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31]. 또한 냉정한 태도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영화에 담는다. 그럼으로써 지배계급에 대한 하층 계급의 ‘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었다[32]. 정작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층 계급은 자신의 온

힘을 바쳐 국가를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층 계급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한’이다.

2) <설국열차>-계급 간 질서 타파의 회망

<설국열차>는 공상과학, 액션 장르의 영화이다. 본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열차 사회’라는 미시적 관점을 선택했다. 엔진이 멈추지 않는 열차의 객차는 비인물 기호 관점에 볼 때, 세계의 질서와 계급 구분을 보여준다. 앞과 뒤의 관계는 서로 다른 계급을 대표한다. 사회학의 개념으로써 사회적 계층 분리는 사회에 있는 구성원의 속성을 따라 계층 분리하는 과정과 현상을 말한다[33]. 외부와 차단된 열차의 객차에는 다양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열차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앞쪽은 ‘머리칸’, 맨 뒤는 ‘꼬리칸’이다. 꼬리칸에 있는 승객들은 먹이사슬의 밑층들이고 대다수 노약자와 같은 하층 계급이다. 열차의 머리칸으로 갈수록 넉넉한 자원과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칸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으며 ‘한’이라는 감정은 엄청난 분노가 되어 열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된다.

2013년 <설국열차>는 900만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시대의 영화가 되었다. 이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은 그 이유는 하층 계급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34]. 영화 속의 열차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은 하층 계급의 노동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하층 계급이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닌 고통밖에 없으며 이 고통은 ‘한’의 근원이 된다. 열차는 앞으로만 가는 열차는 아닌 지구를 도는 순환 열차다. 이는 ‘계급 질서의 순환’이라는 상징이다. 하층 계급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얻으려면 열차를 멈춰야만 가능하다. 인물 기호로 봤을 때, 주인공 크리스는 ‘개혁자’의 역할이다. 크리스는 머리칸으로 향하는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윌포드와의 대화에서 첫 번째 반란의 수장이었던 길리엄처럼 크리스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커티스는 엔진룸에서 일하는 흑인 소년을 보고 반란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흑인 소년은 최하층 계급을 상징하는 인물 기호이자 미래의 희망이다. 커티스는 엔진룸에서 일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계급제도의 순환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한다는 개혁자의 소명이자 계급의 ‘한’을 느꼈다.



그림 6.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
Figure 6. 'Snowpiercer's final scene.

이 영화 속에서 은유적 기호들은 다수 등장한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년'과 '햇불'이다[35]. 영화 <괴물>과 비슷하게 미래의 희망은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열차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가 섞여 있다. 여기서 '소년'과 '햇불'은 인류의 미래 희망과 문명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영화 결말에 얼어붙은 불모의 땅으로만 여겼던 세상에 북극곰이 살고 있었다. 북극곰은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룰 때 생명체를 상징하는 기호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영화 결말에서 보여준 장면(그림 6 참조)은 소년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북극곰을 통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상상에 맡겼다.

IV. 결 론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사실주의적인 창작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계급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상징적 은유로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계급적 억압과 같은 현상을 신랄한 풍자로 다루며 인간적 욕망과 선악의 동질성, 사회에서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장벽, 그리고 욕망으로 인한 도덕적 붕괴가 영화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다양하고 독특한 관점에서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와 같은 풍부한 기호로 가득 차 있으며, 서로 다른 형태의 기호들을 극적으로 연결하며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호들은 영화의 깊은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 가치를 제공한다.

봉준호의 초기 영화를 보면, 풍자와 폭로에 중점을 두고 '비판'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깨우침을 위한 폭로 속 희망'으로 전환하였다. 하층 계급의 '각성'은 국가의 민주화와 평등으로 발전하는 근원이 되었다. '미움'은 단순한 '한'이나 '회한'이 아

닌 개인의 명예와 국가의 존엄 추구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한국의 '한 문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선진국 대열의 진입에 중요한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기에 목적이 아닌 원동력이 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하층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사회의 역사와 인류의 공동운명에 대한 논의로 확장함으로써 한국 영화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References

- [1] Gui-Yeon Jang, "The Class Structure of Korea in the Neoliberal Age", *Marxist studies*, Vol.10, No.3, pp.12, 2013.
- [2] Jiang Zhicheng, "Research on Internet flaunt W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Transformation", *Management Observation*, pp.46-47, 2022. DOI 10.3969/j.issn.1007-7243.2017.17.029
- [3] Song, Man-yong, Song, Jin-yeul, "A Study on the Space of Paradoxical 'Han(恨)' of Bong Joon Ho's Film in <Parasite>",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No.70, pp.303, 2020. DOI 10.25111/jcd.2020.70.22
- [4] Dai Jianhua, Yang Na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alysis of Nuclear Sewage Discharge in Japan", *Contemporary World*, pp.74-79, June 2021.
- [5] Dai Jinhua, "Space and the Class Cube", *Chinese Journal of Social Sciences*, October 29, 2016.
- [6] Christian M. Matz., "Le significant imaginaire". *China Radio and Television Press*, No.8, 2006.
- [7] Wei Yi, "Metz film semiotics and its meaning", *China New Communications*, No.22, pp.239, June 2020. DOI 10.3969/j.issn.1673-4866.2020.07.207
- [8] Che Wenbo, "The Freud Collection", *Changchun Press*, pp. 467, 1998.
- [9] Fu Tianjiao, "The study of the 'Han' of North Korean aesthetic emotion", *Yanbian University*, April 2013.
- [10] Du Cui Fang, "Inheritance and change of Korean 'Han' Culture", *Cultural Vision*, No.4, pp. 128, 2016.
- [11] Pan Wenjiao, "The meanings and similariti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Han' and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Han' cultural

- complex”, *Cultural Exchange*, No.5, pp.174, 2023. DOI 10.3969/j.issn.2096–4110.2023.05.035
- [12] Wang Xiaoling, “The inheritance and change of Korean ‘Han’ culture, an analysis and study of Korean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Contemporary Korea*, No.7, 2010. DOI 10.3969/j.issn.1007–483X.2010.03.007
- [13] Park Chung Kam, “More ‘Han’ the nation, more ‘Han’ the president Roh Moo-hyun suicide cause analysis”, *Journal of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pp. 58, 2010.
- [14] Kim Dazhong, “Building peace and Democracy: The Collection of Philosophy and Dialogue”, *World Knowledge Press*, pp. 235,45, 1991.
- [15] Wu Tong, “Han Culture Research in Korean Contemporary Film”, *Shandong Normal University*, May 2018.
- [16] Xu Yingying, Zhang Yanyu, “the Korean society under the influence of ‘Han’ culture and ‘pro sperity’ culture”, *Business Situation*, No. 26, 2012.
- [17] He Xiaoqian, “The Symbol Of the Metaphor And Construction Function Of the Film Class Take Parasite As An Example”, *Sound Screen World*, pp. 62, November 2020.
- [18] Karl Marx, “Marxist class theory and contemporary social development”,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2020.
- [19] Bian Jiang, “Binary conflict, genre brushwork, narrative breaking: On the author of the film ‘kidnap the Dog at the Door’”, *Beijing Film Academy*, No.7, pp. 145, 2022.
- [20] Antonio Gramsci, “Notes from the Prison”, *China Social Sciences Press*, October 2000.
- [21] Max Scheler, “Value subversion”, *Beijing Sanlian Bookstore*, pp. 7–10, 1997.
- [22] Amy Taubin, “A House Divided—Part Twisty Social Thriller, Part Heart-Stopping Tragicomedy, Bong Joon-ho’s Tour De Force Parasite Locks Two Families”, *Film Comment*, pp. 28–30, 2019.
- [23] Xiong Fang, “World Award film ‘Parasite’ and Art directed by Bong Jun-ho”, *Yanbian University Newspaper (Social Science edition)*, Vo.53, No.4, pp. 141–142, 2020. DOI 10.16154/j.cnki.cn22–1025/c.2020.04.005
- [24] Huang Baoyan, “Analysis of audio-visual language in film metaphor narrative Taking the film Parasite as an example”, *New Media Thinking*, No.5, pp. 125, 2020.
- [25] Gong Pixiang, “Max Weber’s Explanation of political ideas”. *Research on legal Modernization*, pp. 2015.
- [26] Carl Gustav Jung, “Psychology and Literature”, *Beijing: Sanlian Bookstore*, pp. 138. 1987.
- [27] Li Yifei, “The Era Of Desolate Rainy night South Korean Classic Film Memories Of Murder Dialysis”, *Film And Television Literature*, No.11, pp. 104, 2020.
- [28] Du Qingchun., “Image Strategy Of Unresolved Conditions Problem Awareness, Reflection And Ttype Of Bong Jun-ho’s Films”. *Journal of Beijing Film Academy*, No.3, pp. 42–49, 2007.
- [29] Jiang Minghui, Li Guofeng, Shao Jingbo, “From ‘Han Kang Miracle’ to ‘IMF Crisis’ Evaluation of Korean’s Industrial Policy in Economic Developmen”, *Decision Reference*, No.5, pp. 46–47, 1999.
- [30] Zhang Zengwei, “The Symbol Construction And Meaning Of Bong Junhao’s Film The Monster On The Han River”, *Literature Education*, No.6, pp. 85. 2023. DOI 10.16692/j.cnki.wxjyx.2023.07.012
- [31] Hu Xinyue. “Research on film creation by Korean director Bong Joon-ho from the perspective of film semiotics”. *Mass Literature and Art Film and Television Media*, No.7, pp. 123, 2021. DOI 10.27410/d.cnki.gxbfu.2021.000414
- [32] Jun Bing, Feng Zini, “Monster, Fable and post-national film Reality view, historical source and enlightenment significance of Bong Jun-ho film”, *Image Reading*, pp. 73–85, 2020. DOI 0.16364/j.cnki.cn11–4907/j.2020.03.010
- [33] Dai Guibin, “Class and stratum: two modes of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Science in Ningxia*, No.1, pp. 48–51, 2007. DOI 10.3969/j.issn.1002–0292.2007.01.013
- [34] Fan Xiaoqing,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film industry in South Korea”, *Contemporary Film*, No.2, pp. 104–109, 2014.
- [35] Hu Xiaonan, “‘Snow Train’ The dystopian Hollywood imagination of a Korean director”, *Art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No.3, pp. 144, 2015. DOI 10.3969/j.issn.1002–2236.2015.03.020